

# 圖書館學과 「더큐멘테이션」

司 空 哲 譯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 圖書館學과 「더큐멘테이션」①

지난 數拾年間に 刊行된 大部分의 文獻들은 F I D②가 내린 定義를 土臺로 하여 「더큐멘테이션」에 關한 主題를 取扱하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두말할것도 없이 F I D의 定義가 너무 廣愼하여 圖書館員의 業務中 一分野로서 오랫동안 看做되어 오던 方法과 處理節次를 包括한다는 事實에 基因하고 있다. 그 結果 圖書館員은 種類如何를 莫論하고 「더큐멘테이션」이 圖書館業務에 있어 必要不可缺한 一部를 形成한다는 態度下에 그들의 業務限界를 規定되었다.

Grundfragen der Dokumentation③이란 著書에서 Pietsch 教授는 出版 및 未出版된 「더큐멘테이션」의 定義에 關하여 考察하였다. Loosjes④는 Pietsch 가 내린 「더큐멘테이션」이란 用語의 說明을 認定하지 않고 있지만 그 刊行物은 매우 有用하다. 또한 Loosjes 가 認定한 定義는 最近에 와서 Jansen ⑤에 依해서 批評을 받고 있다.

筆者는 여기에서 「더큐멘테이션」을 定義하는 問題에 關한 解決策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지어진 諸定義에다 또 하나의 새로운 定義를 添加하는 것에 不過하며 그렇게 되면 F I D의 定義에 對한 異論이 있을경우 이 異論을 主張할 여러 가지 다른 定義나 마찬가지로 多分히 論爭거리가 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筆者의 意見으로는 「더큐멘테이션」의 實際와 「더큐멘테이션」과 圖書館業務에 있어서의 두드러진 差異와 類似點이 무엇인가를 알아 보는 일이 훨씬 더 有用한 일인 줄로 안다.

筆者 自身이 圖書館員이 아니어서 그의 見解를 全的으로 信用할 만한 處地에 있지 못하다. 차라리 筆者로서는 F I D의 定義를 參考로해서 「더큐멘테이션」 作業에 關하여 集中的 說明을 하고자 한다.

定義에 依하면 「더큐멘테이션」의 세 가지 主要 機能은 蒐集(to collect), 整理(to order), 補給(to disseminate)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Pietsch 教授는 이 세 가지 機能에 다음의 세 가지를 附加하였다. 即 Produce, Re-

produce, Select 로 이 後者의 세 機能에서 筆者는 「더큐멘트」(documents)의 Production 을 排除하려고 하며 다른 두 가지 機能은 F I D의 定義의 機能들과는 같은 等級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即 Reproduction 과 Selection은 「더큐멘테이션」의 重要한 方法(tool)이지 必須 機能은 아니다.

## 蒐 集

印刷된 「더큐멘트」를 蒐集하는 것이 圖書館員의 重要한 任務라는 것에 對하여 「더큐멘탈리스트」나 圖書館員사이에 異見이 별로 없을 것이며 實際로 特殊圖書館 特別 研究機關과 産業機關의 圖書館에 있어서는 「더큐멘탈리스트」나 情報官(information officer)들도 圖書館員들과 같이 責任을 지고 똑같은 일이나 혹은 部分의 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事實만 아니라면 異見이 없다는 點에 있어서는 疑問까지 일 것이다.

科學圖書館의 境遇 蒐集이란 館長(chief librarian)의

註 ① 圖書館業務와 「더큐멘테이션」에 關하여 現在 상당한 混同이 있는것 같다. 여러나라에서 「더큐멘탈리스트」(documentalist)들이 해온 作業은 特殊圖書館의 圖書館員이 해온 作業과 같은 것이라하고 그밖의 나라에서는 그들의 活動은 아주 區分이 分明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問題에 關한 一聯의 記事를 Bulletin 에 실리기를 提案하며 本稿가 그중 첫번째가 된다.

②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Documentation: 「더큐멘테이션」이란 人間活動의 모든 領域에 미치는 各種의 「더큐멘트」를 蒐集, 分類, 補給하는 것을 뜻한다.

③ E. Pietsch. Grundfragen der Dokumentation. Dortmund, 1954(?), p. 27. (Sonderdruck aus Heft 14 der Schriftenreihe der Arbeitsgemeinschaft für Rationalisier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④ Th. P. Loosjes. Documentatie van wetenschappelijke literatuur. Amsterdam, 1957, xvi + 184 p.

⑤ W.M.J. Jansen, "Het begrip documentatie" Bibliotheekleven, vol.45, No.10, p.348-52.

責任中의 하나이고 國立 또는 地域的 中央圖書館長이 이 責任을 自身이 지지 않는다는 것은 想像키 困難한 일이다. 그들의 圖書蒐集方法은 實地要求에 따라 遂行되어야 하는데 이들 實地要求에 必要한 資料를 얻을 수만 있다면 自然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한가지 方法은 充足될 수 없는 資料에 對한 要求를 記錄에 남겨 나가는 것이다. 이런일이 自己가 맡은 「더큐멘테이션」部 (de partment)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圖書館員은 없을 것이지만 特殊圖書館에서 이러한 일이 部分的으로 「더큐멘탈리스트」에 依해 實行을 보고 있는데 그 理由는 自己가 어떤 文獻을 調査할때 主要한 單行本과 定期刊行物이 不足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되기 때문이다. 文獻을 調査하는 것이 「더큐멘테이션」業務中의 하나라는 것은 確實하다. Loosjes 教授自身的 말에 依하면 「더큐멘탈리스트」의 職責을 誇張하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文獻索出이 그들의 唯一한 業務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主要業務 가운데 하나라 말하고 있다. 分明히 말해서 資料蒐集方法에 어떤 缺陷이 있으면 이일은 適切히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圖書館員이 藏書構成에 責任을 맡고 있는 特殊圖書館에 있어서도 「더큐멘탈리스트」의 經驗을 考慮하지 않는다는 것은 非現實的이다. 그래서 「더큐멘탈리스트」의 任務는 缺本된 文獻(missing literature)을 注意깊게 分析하는데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의 助言은 眞正한 價値를 지니는 것이다.

(勿論 NIDER의 境遇에 있어서는 事情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 機關의 情報奉仕는 Dutch Patent Office의 files를 利用할 수 있기 때문에 特許文獻을 調査하는 일에 置重하고 있다.)

勿論 同機關은 이런 files를 만드는 作業에는 參與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Patent Office의 圖書館員의 境遇도 역시 마찬가지다. 特許資料는 關係政府間에 이루어진 協定에 따라서 交換形式으로 入手되고 있다.)

### 整 理

體系的 整理는 諸般 活動의 基礎이고 單行本, 定期刊行物, 外 類似한 「더큐멘트」를 取扱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資料를 長期間 保存되고 利用에 提供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두 主要素가 重要한 役割을 한다. 即 目錄과 分類이다.

大體로 圖書館員과 「더큐멘탈리스트」들은 目錄作業이 專的으로 圖書館員의 業務 範圍內에 屬하고 있는데 意見이 一致하고 있으나 分類에 關하여는 그렇지 못하다.

그 理由는 兩者가 모두 分類가 서로 자기네 領域를 놓여 있다고 主張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分類에 다루고자 하는데는 그만한 理由가 있다. Loosjes 教授

의 見解를 採擇한다면 이미 上述한바 있지만 「더큐멘탈리스트」의 重要業務는 研究에 從事하는 사람의 助言에 따라서 文獻을 調査하는 일이며 分類는 最少限 理論的으로는 「더큐멘탈리스트」가 한 일은 아니다. 文獻 調査를 爲하여 그들이 取扱할 수 있는 出處資料가 충분히 索引되며 檢索을 遂行하기 위하여 마련된 索引體系에 익숙해지지만 하면 된다. 그러나 不幸히도 抄錄奉仕가 徹底한 文獻檢索을 하는 데에 理想的이라고 생각할만큼의 完全과 迅速한 段階에 아직 到達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더큐멘탈리스트」는 秩序 있는 方法으로 文獻에 對한 스스로의 参照를 作成해야 하며 따라서 그 文獻을 分類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分類體系를 꾸미는 일이 반드시 그가 할 일이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으며 이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수 있다. 흔히 「더큐멘탈리스트」는 既存 分類體系中에서 選擇한다. 이選擇은 또한 分類體系의 基礎가 되는 原則 外에 다른 要素들에 依하여 이루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더큐멘탈리스트」의 經驗은 어떤 分類體系를 發展시키는 過程을 通하여 얻어야 한다는 것은 實地가 證明하고 있다. "to classify"와 "to class"는 뚜렷한 區別이 여기서 그어져야 한다. classify 한다는 것은 이미 定한 規則에 따라서 어떤 體系를 세우고 確立시키는 것이다. class 한다는 것은 既存體系內에 어떤 「더큐멘트」의 內容의 位置를 表示하는 것이다.

主로 分類는 그 分野에 있어서 專門家가 할 일이다. 어떤 境遇에 있어서는 體系가 科學的인 건 하지만 結果的으로 調査者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수가 있다. 더없이 仔細하게 「아이디어」가 細分된 文獻이 있는 反面에 分類體系에서는 볼 수도 없는 細目を 包含한 文獻이 있을 수 있다. 「더큐멘탈리스트」는 日常作業에 있어서 主題에 關한 文獻에 接하고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精密性 있는 分類體系가 必要한가를 判斷하는데 있어 主題 專門家보다 나은 位置에 있다.

### 補 給

確實히 「더큐멘테이션」의 主要業務는 文獻을 補給하는 것이다. 「더큐멘테이션」의 業務中 이 部分을 둘러싸고 圖書館員과 「더큐멘탈리스트」間에 생기는 意見의 差異는 여기에 주어진 말이 廣意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圖書館員이 말하는바 個人的으로 文獻을 蒐集하는 境遇에도 그렇겠지만 利用者의 注意를 集中시키지 못하는 文獻을 蒐集한다는 것은 그 本來意圖가 無意味하다고 한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公共基金으로 이루어진 藏書, 예를들면 教育에 奉仕하기 爲하여 設立된 大學圖書館은 學生에 依한 接近이 可能해야 하고 文獻을 찾는데 도움을 주도록 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單純히 受動的인 態度는 研究活動이나 産業에 不充分

하다. 事實 利用可能性이 있는 文獻에 關한 情報의 活潑한 補給의 必要性이야 말로 筆者가 느끼는바 文獻活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重要한 것이다. 文獻補給이 「더큐멘테이션」에 屬하는 問題인지 아닌지에 關해서는 終終 論議 對象이 되어 왔다. 科學圖書館의 境遇 積極의 文獻補給은 圖書館員이 하는 일이라고 看做될 수 있지만 筆者는 特殊圖書館의 境遇까지 包含해서 이런 見解에는 反對한다.

그러면 왜 文獻補給의 特殊技術이 圖書館外部에서 發展되어 왔는가를 調査하여 보겠다.

文獻가운데서 言及된 補給業務의 여러局面中 가장 重要한 引用은 Pietsch 教授에 依한 것인데 筆者는 特別 時間要素라고 強調하고 싶다. 急速도로 發展하는 自然科學과 工學을 爲하여 어떤 다른 곳에서 出版된 論理, 事實, 資料를 可能한 限 迅速히 利用可能케 함이 必要하였다. 그러나 出版物의 增加와 研究者들의 定期刊行物에 對한 關心의 成長은 深刻한 障礙를 自아했다.

資料는 許多한 다른 出版物 속에서 찾아야 하게되었고 가끔 不適切한 主題名 밑에서 찾기 힘들어지는 難點도 있었다. 勿論 이런事實은 文獻을 좀더 接近하기 쉽도록 하고 그것을 補給하는 것이 圖書館員의 任務가 아님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原則적으로 藏書의 保護者로서 또한 補給責任者로서의 圖書館員에 對하여는 별로 論爭은 없다. 그러나 迅速성의 必要가 매우 重大하고 多量의 出版物이 압도적이어서 完全한 補給은 專門化를 要한다.

自然科學에 있어서 또하나의 要素가 影響을 주고 있다. 研究從事者는 各者가 專攻하고 있는 主題에 關한 出版物을 찾을 수 있다는 希望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關心을 갖고 있는 分野의 發展狀況에 關한 情報를 널리 獲得하기 爲하여 恒常 文獻에 뒤떨어져서는 안된다. 이 境遇 圖書館員의 할 일은 有効適切한 文獻을 具備토록 하여야 한다.

研究者가 새로운 主題를 갖고 研究에 임할때 文獻調査者의 經驗을 成果있게 利用할 수 있다. 記述的 報告가 必要한 것인지 또는 단지 抄錄이 있건 없건 標題目 錄만이 必要한지는 境遇에 따르게 된 것이지 「더큐멘탈리스트」가 決定할 問題는 아니다. 그러나 많은 利用者는 記述報告에 興味를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Netherlands에 特別 顯著하며 每年 15名~20名의 「더큐멘탈리스트」가 約 120時間에 걸쳐 課程(course)을 履修하는데 이 課程의 主要部分이 記述的 文獻報告作成에 關한 것이다.

産業에 있어서 時間要素는 研究에 있어보다 더 重要하다. 迅速한 情報가 꼭 必要하나 우리가 圖書館員에

게 迅速성의 要求때문에 補給事務를 다른일 보다 더욱 重要하게 다루도록 要求할 수 있을까? 答은 否定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迅速한 情報를 提供하는 問題는 時間과 精力을 全的으로 그것을 爲해 消費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할 課題이다.

補給의 速度에 있어 또하나의 障礙인 尠大한 量의 出版物은 自然科學과 工學에 있어서 必然的으로 文獻調査를 專門家들에게 依賴해야 한다. 勿論 文獻調査者는 適切한 知識分野에 訓練을 받아야 하고 重要한 出版物이 過小評價되거나 資料가 다른사람에게 잘못 傳達되는 일이 없도록 迅速한 情報業務에도 이같은 訓練은 必要하다. 文獻調査者와 情報官의 資格條項은 이례서 同一해야 하며 이 業務는 明白히 同一人에 依해서 實行되어야 한다.

迅速한 情報의 提供과 文獻調査의 遂行等 「더큐멘테이션」業務를 取扱하는 外에 「더큐멘테이션」部는 그때 그때 要請되는 週及의 情報를 提供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目的을 爲하여 完全하고 容易하게 接近할 수 있는 情報系가 要求되는 것이다. 이미 말했지만 抄錄誌의 缺點은 原(original)出版物의 날자와 抄錄誌의 날자 사이에 생긴 時差다. 「더큐멘테이션」의 抄錄奉仕의 改善을 爲한 努力을 考察할 때 이런 일은 矛盾된것 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間隔을 메꾸기위한 「더큐멘테이션」科는 科 自體의 抄錄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數의 抄錄誌가 그들의 事業을 改善키위한 手段으로서 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Unions Abstracting Board에서 相互協助하고 있는 것은 鼓舞的인 일이다.

끝으로 Pietsch 教授가 말한 其他 機能에 對하여 말 하겠다. 即 標準化(Standardization), 生産(Production) 複寫(Reproduction), 選擇(Selection)이다. 筆者는 이것들이 「더큐멘테이션」이나 圖書館業務의 機能이 아니고 보다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手段(tools)에 不 過하다고 믿는다. 「더큐멘테」의 生産은 하나의 手段이 아니고 第二次的 出版物(Abstracts, Reviews 등)의 形態로 되는 副產物이기 때문에 아마도 例外가 될 수 있다. 「더큐멘테이션」과 圖書館業務가 점점 더 複雜해지 기 때문에 方法의 發展에 상당한 注意를 傾注해야함은 當然하다. 複寫와 選擇은 過去 20年동안 많이 改良되 었으나 部分的으로 可能性이 實驗되었고 複寫와 選擇의 技術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는데 關한 最終的 解決策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더큐멘테이션」分野에 있어서 標準化의 發展은 더욱 보잘것 없다. 過去 10年동안에 이루어진 業績에 비추어 圖書館員과 「더큐멘탈리스트」의 相互協助에 感謝하며 本稿가 그들 各者의 業務限界에 對한 見解의 差異

(26面に 繼ぎ)

會의 發展과 直結된것이므로 이의 育成發展에 對하여는 連帶義務感을 가지도록 새로운 觀心을 불러 이르게 하는 등의 여러가지로 圖書館運營의 將來로서는 매우 有益할것 같다.

### 3. 構 想

#### 가. 內部施設補完

地理적으로 보아 大田市는 靑工業 및 交通의 中心地로서 市勢의 擴張이 크게 豫見되어 지고 普遍的인 圖書館使命外에 地域社會特殊性에 알맞는 公共圖書館이어야 할것이므로 이에는 차임새 있는 施設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이미 美麗하고 아담한 現代式 建物を 갖인 當圖書館으로서 이 建物에 맞는 備品을 具備해 놓아야 함은 勿論이지만 內部施設 구조에 있어서도 適應되어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미 紹介된 當圖書館의 現施設로서는 不足한點이 많으므로 앞으로 讀書座談會 研究發表會 討論會 등의 行事を 爲하여 集會室과 展示室을 마련 해야 되겠으며 公共의 性格에 適應하여 될수있으면 學生閱覽席을 줄여 婦人閱覽室等 一般 大衆을 爲主로한 閱覽席을 늘이고 郷土資料室을 마련하여 고장 固有의 文化를 保存할 예정이다. 그리고 언제 實現 될지는 모르나 開架式을 目的으로 하여 于先半開架式으로라도 하여 無料를 原則으로 하는 圖書館으로의 轉換을 爲하여 最善의 努力을 다할것이며 圖書館資料도 具體的計劃下에 廣範圍하게 蒐集 하는 등 多樣한 圖書館으로서 구축해야 되겠다.

#### 나. 職員資質向上

훌륭한 施設의 圖書館에 對處하여 繼續적으로 館構成員의 資質向上을 시켜야 되겠다. 于先 司書職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는 其間 當圖書館의 發足 時期의 짧은 原因으로 해서 가장 原心的 問題이나 이에 손을 못대고 있었지만 今年 10月부터는 圖書館에서 끝까지 從事할 現職員을 圖書從事員으로서 만들기 爲하여 自體講習은 勿論 各種 司書講習會에 參加 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66年度에는 어떠한 手段을 강구해서 라도 司書職 TO를 確保할 것이다.

TO를 받는데의 한 理由로서의 예비로 이번 10月11日부터 있는 正司書資格取得過程講習會에 受講토록 現職員 二名을 出張 보냈다.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는 協會側의 各별한 後援이 있을것으로 믿는다.

#### 다. 多樣한 圖書館으로서의 指向

文明의 洪水時代라고 오늘날을 表現한다면 文明을 理解할수 있는 知識을 갖추어 文明에 適應할수 있는 內的資本을 落積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知識의 總本產이 되어질 當圖書館은 各界各層의 人士들 市民들의 集會所로서 文化센터의 機能을 發揮할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于先 文化的 行事を 모두 當圖書館에서 主管함으로써 文化人들의 集會場所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

다음 政界人士라든가 文化人 學者 등 여러人士들이 다방을 찾아가 그 비싼 賃料을 앞에놓고 어색한 담소를 하는것 보다 圖書館을 集會場所로서 利用 하여 밝은 雰圍氣속에서 國事를 論하고 學門을 討論하고 施政을 研究하며 教養을 爲하여 함께 모이면 얼마나 신성하고 價値있는 것이 되겠는가 언제나 圖書館에 나오면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연락할수 있게되고 이야기할수 있는 역할을 擔當할수 있도록함을 생각하고 있다. 다음으로 圖書館으로 당연히 해야할 移動文庫, 分館設置 視聽覺資料 購入等 여러가지 事業을 實現하여 과연 圖書館으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지녀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 맺 는 말

以上 소개한 當圖書館運營의 一面은 어디까지나 意慾만으로는 實現되기 어려우며 根本적으로 財源의 問題와 不可分의 關係에 놓여지게 되고 따라서 이와같은 諸般現實의인 條件의 打開를 爲하여는 尙한 어려운 問題가 따른다고는 하겠으나 우리社會의 經濟的, 文化的 後進性을 하루빨리 克服하기 爲하여 圖書館이 지니는 바 그責任의 重大性을 깊이 絶感하고 圖書館人으로서 忍耐과 勇氣로서 부여된 任務를 다하여 先進諸國의 進歩된 文化思潮를 攝養하고 眞正한 意味에서의 철저한 奉仕理念을 “뜻”로한 地方圖書館으로서 名實相符한 이고장의 “文化的 센터”가 되고져 함은 또한 너무나도 攄白한 일이라 하겠다.

(29面에서 繼續)

는 그다지 深刻한 問題를 提起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本稿는 Hague 에 있는 NIDER (Nederlands Instituut voor Documentatie en Registratuur)의 Director M. Verhoef氏가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 14, No. 5, p. 193—96에 실은 “Librarianship and Documentation”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